

채란양계업의 발전과 G. P센타 정착 방안

김기경 / 고창양계 기획실 차장

채란양계업의 발전방향 또는 발전대책이라는 주제는 이 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국내 어떤 양계 관련 잡지를 펼쳐보아도 매월 1, 2편씩 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미나 및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빈번히 논의되고 있다. 물론 지면이나 회의석상에서 발표된 좋은 방안들이 대부분 발표를 하는 선에서 그치고 실제 업계에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 채란업이 이만큼 발전하게된데 대하여 그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며, 발전대책이라는 자체가 그 시점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앞으로도 계속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채란양계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마 유통구조의 불합리성 이라는데 의견을 달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채란계의 생산성 향상에 관해서는 닭이 생산에

필요로 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어 주는데에 관한 환경적인 측면과 닭 자체의 능력을 개량하는 유전적인 측면(이 부분은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에서 괄목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는 바 이처럼 생산성의 향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품종의 우열에 대한 논쟁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그 자체의 향상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수익이 곧 자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반해 그 닭이 생산한 계란의 유통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의견만 분분할 뿐이지 실행되는 부분이 미소하여 우리나라의 계란유통이 지금이나 별반 달라진게 없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생산된 계란이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산지의 가격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산지의 가격이 하락하여도 계란의 소비가 그다지 늘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계란의 품질도 떨어지게 된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판매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불합리성을 다소 개선하고 있으나 계란상인들이 이미 대부분의 소매점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소매점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보다는 역시 중간상인에게 판매의 대부분을 의지하게 되어 좋은 취지에 비하여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판로의 확보가 어려운 것은 소비자들이 계란을 사려고 할 때, 그것이 누가 생산한 계란이건 간에 다같은, 단순히 "계란"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지 그 "메이커"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계란의 상표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그 상표에 대한 책임있는 계란의 생산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표화는 곧 그 상표의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근래에 이르러

계란을 원제품이라고

보기 보다는 원료로 보아야 한다.

계란을 가공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란의 경우에도 위생적인 G.P 처리를

거쳐 깨끗하게 포장되어야만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양계협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 및 기업에서 계란의 우수성과 소비촉진을 위한 여러가지 행사 및 광고를 하고 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는 홍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일반 채란업자 개개인이 직접 홍보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홍보가 결국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순한 "계란"에 관해서 밖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투자효과가 자신에게 직접 돌아오지 않으므로 투자를 꺼리게 되고 기껏해야 협회에 소비홍보 협찬금이나 내는 정도에서 그치는(그것마저도 안 내는 사람이 많지만)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홍보 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여러가지 다른 예를 빌릴 필요도 없이 같은 축산업계에서만도 병아리의 품종에 대해서, 사료의 품질에 대해서, 약품의 우수성에 대해서 등등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수많은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적극적인 홍보가 가능한 것은 결국 자기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상표가 있기 때문이며, 계란 역시 상표화가 된다면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고 소비자가 계란의 우수함을 인정해감에 따라 소비도 촉진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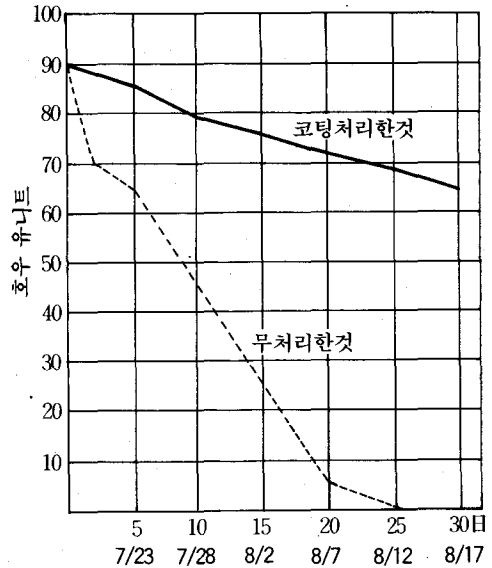
계란의 상표화를 무리없이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G.P.C(Grading and Packing Center)를 통한 계란의 G.P 처리가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계란의 위생적인 처리와 포장, 신선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취급 및 저장과 소비자의 기호도를 저하시키는 오염란 및 혈반, 육반 등이 있는 부적격란의 제거 등 계란 자체의 품질을 향상시키지 않고는 상품화를 한다 해도 아무런 의의가 없을 것이다. 다행히 근래에 이르러 많은 사람들이 G.P.C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부 조합 또는 개인업체가 G.P.C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 실천하고 있으나 국내에 G.P.C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G.P.C 자체의 운영방법 이외에 몇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계란을 완제품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및 업계전체의 계란에 대한 인식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계란이 완전식품이라는데 이의를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계란을 완제품이라고 보기 보다는 원료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계란을 가공제품의 원료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선란의 경우에도 위생적인 G.P 처리를 거쳐 깨끗하게 포장되어야만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양계 선진국의 예로 미루어 보더라도 앞으로는 G.P 처리된 계란의 유통이 점점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단지 진행과정 중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만을 염려하여 이의 실행을 늦추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채란업의 발전이 늦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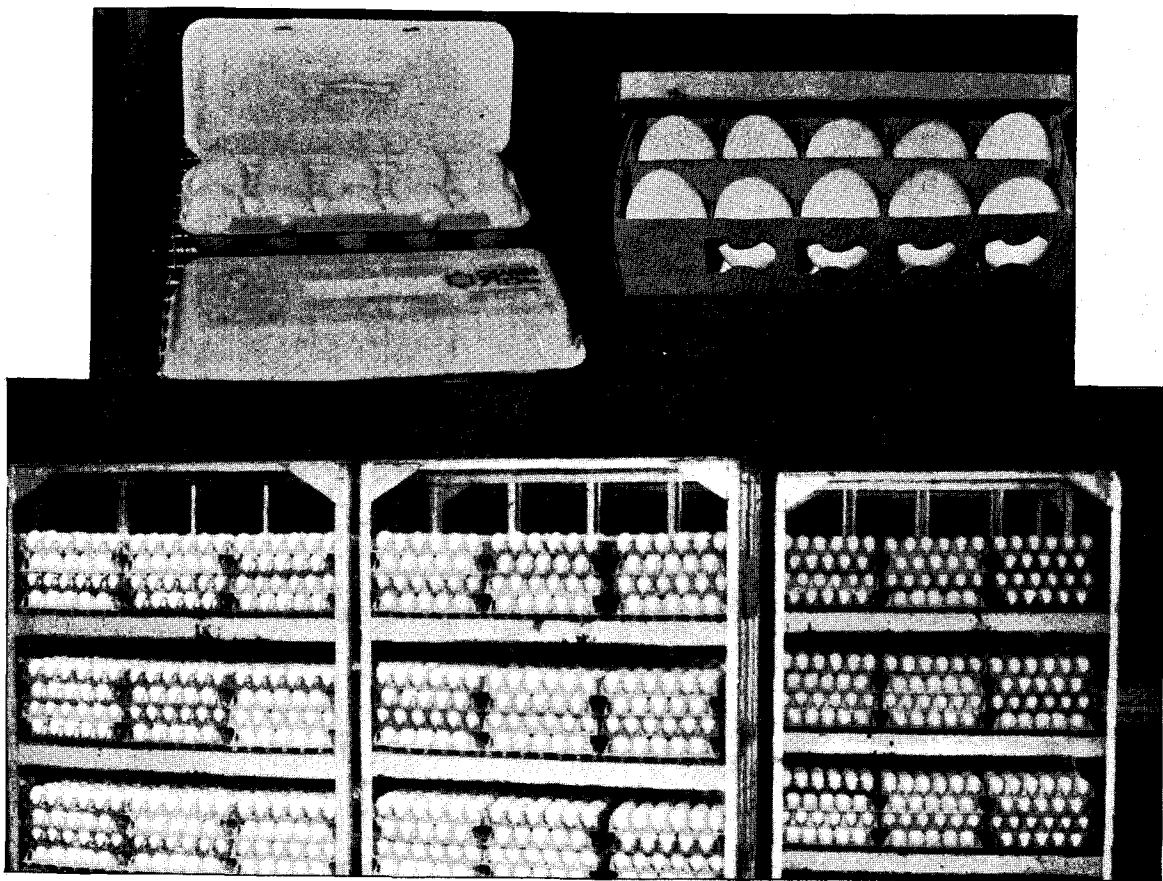
둘째는 계란의 보존성 증가를 위한 적절한 보관 및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이는 계란의 내부 품질을 장기간 신선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G.P.C의 중요한 기능중 하나인 난가의 극심한 등락을 방지하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다. 난가가 하락할 때 저장, 비축하고 난가가 상승할때 비축분을 방출하여 난가의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장기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코팅처리와 저장기간에 따른 달걀의 신선도 변화

계란을 장기간 신선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냉장저장, 냉장유통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계란 판매를 콜드 체인화하는데는 아직 상당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저장만이라도 필히 냉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같은 온도에서도 3~4배 보존성을 높일 수 있는 미네랄 오일 등의 코팅 처리도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 G.P.C의 설립자금 및 계란의 수매비축자금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 G.P.C 설립의 난점중 하나인만큼 G.P.C의 육성을 통한 국내 채란업의 안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해당 부처에서도 여러방면으로 노심초사하고 있고 일부 G.P.C 설립에 지원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내년도 정부 예산의 전체 규모가 19.7%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산분야는 14.3% 감소되는 것을 볼 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꼭히 자금의 지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G.P.C의 농공단지 입주 주선, 관련 기자재 수입시의 관세 감면 건의



등 다각적인 G.P.C의 육성방법을 모색하여 각 G.P.C 단위의 생산조절을 유도한다면 별도의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전국의 계란 수급이 안정 될 것이다.

끝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우리의 문제를 남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남이 해결해 주지도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수준이 외국만 못하기 때문에 G.P 처리된 계란의 유통은 아직 시기상조라느니, G.P 처리를 하면 처리비가 많이 들어서 결국 난가만 인상시킬 뿐이라든지 하는 우려의 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반대운동이 열심인 양담배 소비는 왜 갈수록 늘어나며, 외국의 수입개방 압력이 가중될수록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외래품의 사

용은 왜 늘어만 가는지, 과연 일부 물지각한 인사들 때문일까? 농산물이 수입개방되었다 하더라도 계란, 특히 신선란의 수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일말의 안도감은 있지만, 만약 위생처리하여 멋지게 포장된 외제 계란이 슈퍼마켓 진열장에 놓여진다면 역시 가격 차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외면할 것인지 궁금하다.

각설하고 이제 이런 저런 문제점을 들춰내서 따질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진인사 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이 있다. 우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자는 말일 것이다. 더욱이 그것이 꼭 필요한 일임에야 설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양계**